

아이들 학교 가는 날... 학부모는 '좌불안석'

고 2·중 3·초 1~2학년, 유치원생 오늘부터 등교
광주·전남 약 20만명, 전체 50%가 등교 수업
학교들 정·후문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 방역물품 비치

고등학교 3학년과 일부 지역 소규모 학교 학생들이 지난 20일 등교한데 이어 27일 고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초등 1~2학년, 유치원생들이 등교(원)하지만 등교수업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관련기사 6·7면〉

교육부 등 방역 당국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등교개학이 생활방역 성공을 가능케 하는 시금석'이라며 학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엄격 방역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학부모들의 걱정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26일 현재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해 유치원을 포함해 서울 학교 11개교, 경북 185개교, 경기 부천 1개교 등이 27일로 예정된 등교를 연기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의 학교들이 극도의 긴장상태를 보이고 있다. 추가 등교로 인해 학생들의 밀집도가 커지고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생까지 등교(원)을 시작하면서 학생들의 지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고2와 중3, 초 1~2, 유치원생들이 추가로 등교하면 광주 9만 6000여명, 전남 10만 3000여명 등 총 19만 9000여 명이 등교수업을 하게 된다. 원격수업을 감안하더라도 광주·전남 지역 학생 50%가 등교해 수업을 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지역 교육당국은 초등학교에

대한 방역과 과밀학급 분리수업 대책을 마련하는 등 초긴장 속에 등교수업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등교수업이 예정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방역작업을 마쳤다. 일선 학교들은 일제히 정·후문에 체온측정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소독작업과 방역물품을 비치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시교육청은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 우려와 관련해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중학교 전체 학생 수가 800명 이상, 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가 900명 이상인 일부 중·고교에 한해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병행수업은 격일제, 격주제로 운영 가능하다. 이를 토대로 학교는 시교육청과 1차 협의를 실시하며, 교육청은 학생수 대비 학교공간에 대해 점검한다. 이후 학교는 교직원과 학부모 의견조사를 실시해 학부모 50% 이상 동의가 있을 시 교육청과 2차 협의의 진행 후 운영할 수 있다.

전남도교육청 역시 지난주 첫 등교개학 경험을 바탕으로 차질없는 등교수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일선 현장에 순차적 등교로 학생 밀집도가 높아질 것에 대비한 다양한 방역 대책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강력한 교육 및 교육행정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등교 준비 만전 27일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 각각 등교를 시작하는 가운데 26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북구청 방역반원들이 코로나 19 방역을 하고 있다. 칠판에 주의 사항이 적힌 쪽지가 붙여져 있다.

하지만 교육당국의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1~2학년과 유치원생 자녀를 둔 학부모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고등학교 등 고학년과 달리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는지 걱정이라는 의견과 함께 자녀들의 등교 일정이 달라 생활지도에도 어려움이 많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광주 광산구의 한 학부모는 "등교를 하게 돼 다행이지만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할 수 있을지, 아이들이 마스크를 종이 쓰고 거리유지는 잘 할지가 걱정"이라며 불안해했다.

그는 또 "맛별이부부라 그동안 아이들끼리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했는데 수업보다는 하루종일 게임만 하고 지냈다"며 "정말 보내도 걱정 안 보내도 걱정인 상

황"이라고 토로했다.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두 자녀를 키우는 또 다른 학부모는 "교육부에서는 등교수업을 하더라도 긴급돌봄을 이어가겠다고 했는데, 정작 학교에서는 아직 명확한 고지가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며 "맛별이 부부들은 당장 하루하루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하소연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올 여름 날씨 지난해보다 덥다

광주·전남 기상전망

올 여름 광주·전남지역은 작년보다 덥고, 비는 평년보다 적게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올 여름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2~3개 그칠 것으로 예보됐다. 최근 광주·전남지역은 여름철 평균기온이 높아지고, 강수량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2020년 광주·전남 여름철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철 평균 기온은 평년(23.9도)과 작년(24.1도)보다 0.5~1.5도 높고,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폭염일수(43일)를 기록했던 2018년보다는 덜하지만 지난해보다는 더운 날씨가 예상된다. 기상청이 전망한 올 여름 폭염예상일수는 광주 20~25일·전남 12~17일, 열대야 예상일수는 광주·전남 17~22일로 평년과 작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634.6~874.6mm)과 비슷하거나 적었고, 여름철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6~7월 중순까지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었고, 7월 하순부터 8월까지 태풍과 국지성 호우의 영향으로 다소 많은 강수량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여름철 7개 태풍의 영향을 받은 것과는 달리, 올해는 2~3개의 태풍이 광주·전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광주지방기상청은 올 여름부터 기존 낮 최고기온을 기준으로 발표했던 폭염특보를 습도를 고려한 체감온도 기준으로 변경한다. 또 하루에 불꽃했던 태풍 예측 기간을 5일로 늘려 진로예측 정보를 제공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연 평균 1만4500명... 고향 떠나는 광주·전남 청년들의 비애

서울 등 수도권으로
20대 청년들 진출 많아

최근 20년 동안 연 평균 1만4500명의 20대 청년이 광주·전남에서 다른 사·도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주 20대 청년 4800명은 수도권으로 갔고 전남 20대 5600명은 수도권, 2300여명은 광주로 터를 옮겼다. 광주·전

남 40만여 명의 20대 청년 가운데 1만여 명이 수도권으로 간 셈이다.

호남지방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00년 이후 20년간(2000~2019) 인구이동 추이에 따르면 연령대별 순유출자 수는 20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2588명, 전남에선 8522명의 20대가 살던 곳을 떠났다. 최근 20년 동안 20대 청년 연평균 순유출자 수는 광주 2943명, 전남 1만1560명 등 총

1만4503명으로 집계됐다.

광주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출은 10대, 20대 및 50대 연령층에서 2000년 이후 지속해서 진행됐다. 순유출은 2000년 1만300여명에서 2010년과 2015년 2700여명과 3400여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7300여명으로 다시 늘었다. 전출자를 지역 순으로 보면 전남이 가장 많고 서울, 경기 순이다.

전남에서의 수도권 순유출은 2015년을 제외하고 2000년 이후 지속해서 진행됐

다. 2000년에는 2만800명에 달했던 순유출자는 2015년 2700여명까지 준 뒤 2015년 2100여명 순유출으로 잠깐 돌아섰으나 지난해는 5000여명이 수도권으로 더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10대와 20대에서는 지속적으로 빠져나갔으며 50대는 귀농·귀촌 등의 영향으로 전출자보다 전입자가 더 많았다.

전남에서 광주로 가장 많은 사람이 빠

져나갔으며 서울, 경기 순이었다. 전남에서 광주로의 인구 이동은 2015년 이전은 순유출, 2015~2017년은 혁신도시 준공 등으로 순유입, 2018년 이후는 다시 순유출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기준 전출보다 전입이 많은 순유입 시군은 나주, 장성 순이며, 순유출이 많은 시군은 목포, 해남, 보성 순이었다. 특히 나주 혁신도시가 조성된 2015~2017년에는 광주 30~50대 순유출이 많았다. 지난해 광주에서 전남으로의 순유출자 수는 3만3000여 명으로, 시군구 기준 순유출 상위 10위에서 나주시가 581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버스·택시 마스크 의무화 첫 날 ▶6면
KIA 외아예 김호령이 돌아온다 ▶18면

사랑과 감사의 66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생명영양도움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전남 도정에 관심 있으십니까?

소통인전남에서는 제안도 청원도 누구나 작성 가능합니다.

소통인전남

'소통인전남'을 검색해주세요

http://sotongin.jeonnam.go.kr

다양한 의제를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 청원

전라남도 JeollaNamdo